

학생_수기-10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Wee클래스 덕분입니다.					
응모자	학교	OOOO고등학교	학년		성명	OOO
학업중단 위기원인		마음건강 (공황장애 등)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기간		2024.05.08.~ 2024.06.26. (8주간)				
<p>1. 응모 참여 배경</p> <p>- 1학기에 정서행동 우선 관심군으로 1:1 심리정서회복 마음성장교실에 참여했던 1학년 여학생이 2학기에 행복교실(학교내 대안교실) 10월 사제동행 교외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교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학교에 Wee클래스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학교에 남아 있지 못했을 거라는 마음을 고백하기에 학업중단위기극복 사례 수기를 작성해 보도록 지도함.</p> <p>2. 사례 학생의 특징</p> <p>-4월에 실시한 정서행동검사결과 우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상담교사가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때부터 ADHD와 공황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절친이었다 절교한 친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투신하였으나 다행히 살아서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고하며 그 친구가 자신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음.</p> <p>-체육대회 등 전체학생이 모이는 교육장소에는 공황증상으로 참여를 거부하여 담임교사가 따로 Wee클래스로 연결하여 정서안정을 취하며 자습하도록 지도함.</p> <p>-1학기 초부터 교우관계를 형성해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으나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됨.</p> <p>-갑작스런 공황증상으로 Wee클래스에 1시간 휴식시간을 갖고 안정되어도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 교실로 가는 것을 어려워함.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웅성거림 소리에 예민함을 호소하여 쉬는 시간이 마치면 다음 수업시간 참여를 위해 상담교사가 몇차례 교실까지 데려다 줌.</p> <p>-마음건강문제로 힘겹게 1학기 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자퇴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학부모상담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조치로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임.</p> <p>3. 사례 학생을 위한 학교의 노력들</p> <p>-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제 4차 협의회를 통해 송OO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교육청 정서복지과 병원치료비 지원과 교내 프로그램 중 1:1 심리정서회복 마음성장교실에 참여하도록 안내함.</p> <p>- 여름방학 시작 전 담임교사가 학생을 응원하기 위하여 학생맞춤선물로 인체드로잉북을 선물함 문화콘텐츠학과 학생으로 미술교사인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 인체드로잉에 관심을 보여 여름방학기간 연습할 인체드로잉북을 선택함.</p> <p>- 체육대회 등 단체활동 참석을 버거워 할 때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Wee클래스나 도서관으로 연결하여 자습할 수 있도록 안내함.</p> <p>-1학기에는 심리정서회복 마음성장교실에 주 1회 총 8회기 참석하였고 2학기에는 행복교실 10월 사제동행 교외문화체험에 Wee클래스에 오가며 친해진 같은 공황증상을 가진 옆반 친구와 함께 참여함.</p>						

4. 사례학생(송00) 수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그 경우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그리고 영향이 매우 클지 작을지를 예상하기 힘들고 익숙치 않을수록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다. 그렇기에 아직 성인이 아닌 나와 같은 청소년기엔 그 경우의 수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중에 나는 성장기에 다른 아이들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을 갖겠지만 나는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어서 병원에만 계속 들락달락 거렸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과 함께 학교와 같은 단체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나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고등학교 입학 후 지난 한 학기 동안 휴학, 자퇴와 같은 생각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해왔다.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강한 나에게는 학교에서 수업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져 무단조퇴도 해보았다. 나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Wee클래스 상담실에 너무 자주 가서 단골이 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1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해 사방 팔방 자퇴를 외치고 다녔다. 이로 인해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다녔다.

이쯤되면 ‘학교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깝지 않나?’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자퇴를 외치고 다니면서도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학창시절을 포기해야할지 고민은 되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의 경험보다 일찍이 나의 미래를 위한 예술 경력을 쌓는게 더욱 의미있을 거라 생각해 대부분의 어른들이 말하는 ‘이 시기에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다. 내가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연애경험도 꽤 많고 친구하고 가슴 찢어지게 아픈 다툼도 많았는데도 흔히들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언급하는 일탈도 해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중학교와는 별 차이가 없는 고등학교 1학기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힘든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다름없다 생각했다. 이렇게 정서적 문제를 가진 내가 회까닥 해버려 반에서 주먹다짐을 했던 이후로는 차라리 내가 교실에 없는게 반분위기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 채로 여름방학을 지나 2학기를 맞았다.

이때 즈음에 자퇴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2학년 때는 정말 자퇴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친구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같은 반 남 학생이 밴드 동아리를 같이 하자고 내게 제안해 왔다. 예술을 좋아하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하였고 내 손에는 기타와 베이스가 쥐어졌다.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자퇴를 못하게 되어 아쉽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의 제안은 평범한 제안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제안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도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다가 진로 관련 외부강사가 오셔서 자퇴관련 이야기를 꺼냈는데 강사님들의 위로와 조언에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다. 지금까지는 자퇴에 관한 싸움은 거의 혼자라고 느꼈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진심어린 따뜻한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태껏 해결책만을 찾기 위해 달려왔는데 휴식처와 같은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너무 달리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차분히 2,3학년을 생각해 보았다.

사례명	Wee클래스 덕분입니다.
<p>2학년에 진급하면 선택 과목으로 남이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여전해도 내가 원하는 예술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 2학년에 밴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꽤나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예술활동을 위해 학교에 다닐 이유와 확신이 생기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명확한 미래를 추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p> <p>이렇게 사소해 보여도 학교생활에는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만일 학교 Wee클래스 상담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기회들을 마주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내가 많이 힘들었기에 상담실에서 만난 친구하고의 기억도 선생님과 대화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기억의 느낌이 더 강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씩씩하면서도 좋은 기억이다. 1학기 때 학교생활의 기억들을 정리해 놓은 이 글을 시간이 지나 공연무대를 다니며 다시 읽어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해진다. 만일 자퇴를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나라도 행복이란 것이 있겠지만 새로 생긴 친구들과의 2학년 학교 생활에도 확실히 행복감이 존재할 것이고 아울러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퇴의 기로에서 한 학기의 정신적 방황을 마치고 학교생활을 최대한 즐기는 법을 알게된 나의 이야기에 나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다른 친구들도 이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길을 찾았으면 한다.</p>	